

식약처, 환자단체 대상 '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' 실시

- 희귀·난치성질환 환자 및 가족 대상으로 정책 체감도 조사
- 환자와 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활용 등 소통 지속 강화

식품의약품안전처(처장 오유경)는 환자단체와 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「2025년 환자중심 식의약 분야 안전소통 인식도 조사」를 10월 1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.

* 조사기간 : 10월 15일 ~ 10월 22일

** 조사대상 : (사)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,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소속 환자 및 가족 약 1,000명

식약처는 환자단체와 '식약처장-환자단체장 간담회', '환자중심 식의약 분야 안전관리 정책토론회', '특수질병 관련 교육영상* 제작', '클릭 뉴스레터 발간' 등 다양한 소통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
* 1형당뇨·폐동맥고혈압('24), 이분척추증·선천성심장병·파킨슨병('25 예정) 등 특정 질병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쉽고 올바르게 전달하기 위해 '24년부터 제작

이번 조사는 식의약 정책·사업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수준을 진단하고 식의약 안전제도 개선, 환자들의 정보 접근성 향상, 환자단체와의 협업 확대 및 소통 강화 등을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다.

조사 주요 항목은 ▲식의약 안전정보 취득 방법 ▲식의약 등 주요 정책 만족도 및 제도 개선 요구사항 ▲환자단체와의 협업사업 인지도 등이다.

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단체와의 협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식의약 안전과 관련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	책임자	과 장	김현선 (043-719-1711)
		담당자	사무관	유미숙 (043-719-2555)